

책의 '애인'을 기다리며

강은교

시인·동아대 국문과 교수

S선생님께.

며칠 동안 안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개는 맞은편 섬을 온통 가리고, 그 안개 사이사이로 배들이 떠 있는 모습이 거의 '무슨 음모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인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폴 클레는 예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의 날씨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것 같은,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하여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릴 것 같은' 그런 기분마저 줍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책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현미의 렌즈' 같은 것.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열심히 보던, 들리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의 보청기를 흔들어대던 시절로서 나는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립니다. '책방 순례'로 기억되곤 하는 그 시절, 나는 학교가 끝나면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모든 책방을 순례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의 한 책방에서 읽기 시작한 소설이라든가 또는 다른 책들은 종로의 책방에 들러 무렵이면 거의 마지막 장을 펼치게 되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릴케를 만났고, 토마스만을 만났으며 사르트르도 만났습니다. 《창작과 비평》의 창간호도 그 시절 거의 정신했던 들춰본 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나의 애인이었고, 그러니까 나는 애인을 찾아 그렇게 행진한 것 입니다. 점원이 옆에 와도 눈치를 채지 못하던 그 '열중'의 시절.

하긴 지금도 대형서점엘 가보면 그 시절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가끔 눈에 띕니다. 그 시절의 책방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아진 오늘의 책방들. 그러나 오늘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몇 장 읽어보고 노트에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얼른 또 다른 책을 들춰보고. 아마 '읽어오기' 숙제를 책방의 폭신한 카펫 위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시험삼아 옆에다가가니, 얼른 책장을 덮습니다. 또는 빨리 나를 쳐다봅니다. 옆에다가가도 영 눈치를 채지 못하는, 그런 '몰아의 경지'라든가 '먼 곳을 보는 눈길'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 곳을 헤매듯 바라보게 하는 그런 책읽기. 이 영상매체 시대, 정보통신 시대에는 불가능한 것 일까요? 혹시 '그런 책'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들뢰즈의 어휘를 빌리면 우리를 '탈주하게 하는' 그런 책, 현상의 세계가 아닌, 현상 속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끄집어내게 하는 책, 문학이라도 좋고 자연과학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문자에 의해서 문자 속으로...아, 문자 뒤로 그 책을 읽는 순간 떠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책은 고전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고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고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출판문화는 그러한 고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사'가 좀 되지 않는다 하여도 말입니다. 물론 저작가들은 그런 책을 써야 할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게 만드는 우리의 출판문화는 후기산업자본주의 시대, 정보통신 시대, 영상 매체 시대에도 살아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고전, 단순히 '시대'의 의미가 아닌 정신의 문제에 있어서의 고전, 우리에게 현미의 렌즈를 들이대는 책, 보청기를 들이대는 책, 결코 광고의 수식어가 아닌 그런 나의 진정한 '애인'을 기다립니다. 나를 끝없이 '순례'하게 하는 그런 애인을. ❖

특집/섹스, 에로스, 젠더	2 90년대 '성담론'의 새로운 윤곽 - 김성기
	3 '성'을 가공한 '출판상품' 과연 팔리나
	4 '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 김정란
	6 '성'의 프리즘에 비춰본 풍속도
	8 '알몸'의 이미지와 예술성
	9 제대로 된 성교육서가 없다
해외신간 리뷰	10 게이문화를 보는 푸코철학의 메시지 - 김종업 헬퍼린 지음 (성 푸코 <i>Saint Foucault</i>)
집중 취재	12 쥐스킨트 열풍, '제발 그냥 놔두시오'
책갈피 산책	7 <새로 쓰는 결혼이야기>를 읽고 - 권택영 11 <생명과 가치>를 읽고 - 김열규 17 <상해의 조선인 영화화제>를 읽고 - 이효인 19 <뇌물의 역사>를 읽고 - 안경환
출판계 소식	13 인터넷 시대의 국제저작권 문제·외
출판 화제	14 초등학생용 영어사전 앞다퉈 출간 15 안락한 생활을 위한 '재테크' 실용서
책과 영상	16 사랑에 관한 네가지 신선한 이야기
재미있는 기획산책	18 보물상자에 담긴 고대 이집트의 비밀 - 장익순
21세기 출판주역	20 조합공동체 '소나무'의 최종덕 조합장
정보 라이트	21 우리책 수출하기 ① - 조승훈
얼굴	22 <미래를 사는 문화정책> 펴낸 김문환 교수
서평	23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 문명대 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 강문규 24 라이언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정치와 문화> - 서규환 이수훈 <세계체제의 인간학> - 민경국 25 김영명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재검토> - 국민호 26 공병호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 민경국 유일상 <사람과 방송> - 최창섭 27 셋 잘리 <광고문화> - 정기현
이 책 그 사람	28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펴낸 노중선씨 <배 이야기> 펴낸 채수종씨 29 <홀로 가는 사람은 자유롭다> 펴낸 이동하 교수
새책 흐름	30 우리말 사랑의 몇가지 방법·외 / 인문·예술 32 어린이책에 '나도 저자' 바람·외 / 어린이·기타 34 새책 속으로 / 40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 - 이중한
	표지 사진 / 김지욱(본문 3면 참조)